금주의 법구-〈법구경〉
욕망의 숲을 자르고
욕망서 벗어난 자가 되어라.
영원한 자유를 찾아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34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2월 19일) 2021년 3월 31일 수요일



조계사 장엄한 봉축 '이웃사랑燈' 불기 2565년 서울 조계사 봉축도량등 표어는 '늘 이웃과 함께'다. 표어에는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 하자는 의미가 담겼다. 코로나19로 모든 사회 구성원이 힘든 만큼 함께 극복해나가자는 발원이기도 하다. '늘 이웃과 함께'라는 이타행의 정신이 범종의 종소리처럼 널리 퍼지길 바란다. 사진제공=조계사

선암사 본사 지정…조계종 '정체성 찾기' 강화

[뉴스분석] 조계종 본사 지위 회복한 선암사 향방은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서
교구 재지정 · 특별법 제정
법원 판결 영향 여부 관심

태고종, 공식입장 표명 없어
사태 추이 관심…'대화' 강조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순천 선암사가 10년만에 조계종 제20교구 본사의 지위를 회복했다. 조계종 중앙종회가 제220차 임시회에서 선암사의 교구본사 재지정을 의결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조계종의 이번 결정이 현재 선암사를 두고 이어져 온 조계종과 태고종 간 소유권 논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정문)는 3월 23일 제220차 임시회를 열고 5번째 안건으로 선암사 제20교구 본사 재지정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선암사 차 체험관 철거소송의 상고심에서 조계종 선암사의 실체에 의문을 제기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종회 결의에 따라 선암사는 10년만에 조계종 교구본사 지위를 회복한 것을 시작으로, 조계종 본사로서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전방위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그 일환으로 중앙종회는 이날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제출한 '조계종 선암사 정상화 특별법' 제정의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특별법은 "'조계종 선암사' 정상화를 통해 정화정신을 회복하고 한국불교 전통이 후대에 계승될 수 있도록 교구본사 지위회복과 교구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을 둔다.

특히 조계종은 선암사의 지위를 제20교구 본사로 하되 주지 겸직금지 제외, 중복 취적 가능 등 다른 교구본사와는 다른 예외조항을 명시했다. 교구본사로서의 지위는 회복했지만, 정상화 특별법인 만큼 일반적인 교구본사 행정과도 차이를 둔 셈이다.

조계종 선암사 주지는 산중총회 없이 총무원장이 임명하며 종무원법 제7조 겸직금지 원칙의 예외로 둔다. 교구 재적승 역시 다른 재적교구와 중복으로 취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원로의원과 중앙종회의원, 총무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도 두지 않도록 명시했다.

또 선암사 정상화를 위한 최고 심의의결기구로 상임위원회를 두며, 관리 정상화를 위해 정화결사단과 산하 재가호법단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정화결사단은 선암사 주지가 교구 재적승을 중심으로 구성 · 조직되며 정화결사단장은 주지의 제청으로 총무원장이 임명토록 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선암사는 제20교구본사의 지위로 교구의 종무를 총괄하며 △선암사 정상화를 위한 사업 △선암사의 포교와 교육 · 문화 · 복지 · 홍보사업 △선암사 신도조직 및 관리 △선암사 재산관리 △기타 선암사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한다.

조계종이 종단 교구본사로서의 선암사의 정체성과 실체적 지위 강화를 위한 행정조치를 본격화함에 따라, 이 같은 노력이 선암사 소유권 논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법원이 1, 2심 판결의 파기환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조계종 선암사의 실체와 실질적 지배 여부에 의문을 제기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태고종측은 선암사 문제와 관련해 별다른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사태 추이를 지켜보는 상황이다.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법적 분쟁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양 종단 모두에게 상처이기에 대화로 풀길 바란다"며 대화와 화합을 통한 해결을 언급하는 등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해 오고 있다.

한편 선암사 소유권 논란은 지난해 대법원이 선암사 '차 체험관 철거 소송'에서 등기소유권자인 조계종 선암사의 실체에 문제를 제기하며 조계종 소유를 인정한 1,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촉발됐다. 조계종은 즉각 대법원 판결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번 판결은 조계종 선암사의 적법한 권한 행사를 부정하고 오히려 1970년 창종한 태고종이 아무런 법적 권한 없이 선암사를 장기간 점유하고 있는 것을 합법화하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이번 사안은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재점화됐지만, 선암사의 등기상 소유권을 가진 조계종과 실질적인 점유를 행사해 온 태고종 간 해결해야 할 묵은 과제인만큼 이번 기회에 판가름이 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2면〉

쌍계총림 방장 고산 대종사 圓寂

23일 법납 74년 · 세수 88세… 종단장 진행

29대 총무원장 등 역임
폐사 직전 쌍계사 중창
27일 쌍계사서 다비식



고산 대종사 임종게

春來萬像生躍動(춘래만상생약동)
秋來收藏待次期(추래수장대차기)
我於一生幻人事(아어일생환인사)
今朝收攝歸故里(금조수섭귀고리)

봄이 오니 만상이 약동하고
가을이 오니 거두어 다음을 기약하네
내 평생 인사(人事)가 꿈만 같은데
오늘 아침 거두어 고향으로 돌아가네

조계종 제29대 총무원장을 역임한 쌍계총림 쌍계사 방장 고산당 혜원 대종사〈사진〉가 3월 23일 오전 8시 46분 쌍계사에서 법납 74년, 세수 88세로 원적했다.

1933년 경남 울주에서 태어난 고산 대종사는 13세에 동산 스님을 은사로 득도해 1948년에 사미계를, 1956년 구족계를 각각 수지했다.

고산 대종사는 기도와 정진을 쉬지 않고 오로지 경과 율을 연구해 경 · 율 · 논 삼장을 습득했다. 1961년 당대 제일 강백인 고봉 스님에게 전강을 받고 청암사 · 범어사 등의 강원에서 후학을 제접했다. 1972년에는 당시 대율사인 석암 스님으로부터 전계를 받아 쌍계사의 전계사가 됐다.

이후 고산 대종사는 교(敎)를 버리고 선(禪)에 들어 선지(禪旨)의 깨달은 바가 있어 몸과 마음을 연마하고 모든 반연을 놓아 버렸다. 그러나 두 해를 지나 놓아버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알고 순회 포교와 전법 교화에 매진했다.

동래포교당과 조계사 · 은해사 등에서 주지를 역임하던 중 고산 대종사는 쌍계사가 폐사 직전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를 듣고 홀로 중창 불사에 들어갔다. 돈을 구해 재목을 사들이고, 1000여 집으로부터 시주를 받아 쌍계사와 국사암을 중창했다. 30여 년 중창불사를 통해 쌍계사는 완전히 새 가람을 이루게 됐다.

고산 대종사는 쌍계사 전계사와 조실을 겸하며 30여 년을 주석했으며, 조계종 총무원장 · 전계대화상 등을 역임했다.

대종사는 포교를 위해 사찰 창건에도 힘을 기울여 부천 석왕사, 부산 혜원정사, 연화도 연화사와 보덕암 등의 사찰을 설립했다. 후학 양성을 위해 고산장학회를 창설해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중 · 고등학생, 대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한편, 고산 대종사의 장례는 종단장으로 치러졌으며, 분향소는 쌍계사 팔영루에 마련됐다. 영결식은 3월 27일 오전 10시 쌍계사 도원암 앞에서 봉행됐으며, 다비식은 쌍계사 연화대에서 엄수됐다.

〈영결 · 다비식 차주 상보〉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위빳사나 수행의 소의경전!
대념처경과 위빳사나 명상
불교 명상의 핵심인 사띠(sati)에 대한 가르침을 담은『대념처경』의 빨리어 전문을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온전히 번역하고 해설!
정순일 역해/신국판/양장/376쪽/값 22,000원

티베트 수행자들이 반드시 배우고 수행하는 논서!
입보리행론 강해 (1~3)
대승불교의 핵심인 보리심과 공성에 대한 샨티데바의 가르침에 진메이펑춰 린포체가 방대한 해설을 달았다.
샨티데바 게송/진메이펑춰 린포체 강설/지엄 편역
신국판/양장/1권 668쪽, 2권 656쪽, 3권 680쪽/각권 값 35,000원

삶의 지혜를 깨우쳐주는 가르침!
자비는 인연을 가리지 않네
수행길에 있는 사람에게는 수행의 지남이 되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삶의 이정표가 되는 부처님 말씀!
혜조 엮음, 신창호 그림/국판/컬러/248쪽/값 14,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